

시온 주보

제2523호
2024년 9월 29일(나해)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에제키엘의 환시

라파엘로 산치오
(Raffaello Sanzio, 1483-1520)
1518, 패널에 유채, 40×30cm,
팔라티나 미술관, 이탈리아 피렌체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민수 11,25-29

화답송 | 시편 19(18),8.10.12-13.14(◎ 9ㄱㄴ)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 야고 5,1-6

복음환호송 | 요한 17,1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



윤용렬 하상바로로 신부 | 등촌1동성당 부주임

사람이 많이 붐비는 어느 역 주변을 걷던 중, 저에게 말을 건네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가요, 영이 정말 맑아 보이세요.” 어떤 의도인지 얼른 눈치채고서, 저는 어색한 미소를 머금고 답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의 대답에 그분의 음성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잠시 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얼굴이 환한 분, 오랜만에 만나요.” 저는 얼른 목례하며 걸음을 두 배로 빨리하여 벗어났습니다. “아, 일정이 있어서요...” 그럼에도, 이유야 어찌 되었든 얼굴이 환하다 하니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분이 매우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개신교 신자 한 분이, 성직자 셔츠에 로만 칼라까지 한 저에게 전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수 초 동안 뵈어 보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가톨릭교회 사제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다니. 제 낮빛이 냉랭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얼른 다른 사람에게 전단을 나누어주려 했기 때문인지, 그분은 곧 저에게서 멀어져 다른 쪽 길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왜 기분이 상했는지를 곰곰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일단 가톨릭교회 사제를 대하는 그 태도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가톨릭교회를 어떻게 보았으면, 이토록 무례할 수가 있나!’ 그런데 제가 그날 입고 있었던

성직자 셔츠는 회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저의 복장만으로 제가 가톨릭교회의 사제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면 한다면, 이제 제 마음이 상한 이유는 그분이 아닌 제 자신에게 있는 셈입니다. 네, 실은 그랬습니다. 저는 사제인 저에게 ‘감히’ 예수님 사랑을 운운하며 천국을 권하는 그분의 태도가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영이 맑다는 소릴 들었을 때는 자못 즐거워했으면서 말이지요. 어쩌면 당시 저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지 마라. ...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39,40) ‘제자도 아닌 주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을 막아보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놓아두라 하십니다. 오히려 죄짓게 할 수 있는 제 손을, 제 발을 잘라 버리고, 죄짓게 할 수 있는 제 자신의 눈을 빼 던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강한 어조에 제자들이 다소 무안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금 묵상해 보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얼 바라시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당신 제자는 그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에제키엘의 환시

오늘의 성화는 에제키엘 예언자가 보고 전했던, 하늘에서 펼쳐지는 환시를 그린 것입니다. 해당 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 사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느님과 견고한 관계 안에 머물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성모님의 눈물



한수산 요한 크리스스토모 | 소설가

그해의 성탄 전야 미사를 저는 어느 대형 성당에서 맞았습니다. 성당 입구는 미리 온 신자들로 가득했고, 저처럼 늦게 온 신자들은 지하 성당으로 내려가 미사를 보라는 거였습니다. 우르르 몰려가 지하 성당에 자리를 잡고 바라보니 앞에는 미사 중계용 대형 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럴 수가! 그 모니터에는 커다랗게 ‘고장’이라고 쓴 A4용지 한 장이 털썩 붙여져 있었습니다. 대림 기간 동안 이 성당은 모니터는 고치지는 않고 ‘고장’이라 쓰고나 있었던 말인가.

미사가 시작되고, 지하 성당의 우리들은 화면도 소리도 먹통인 고장 난 모니터를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대성당으로 통하는 문 옆에 앉아 있던 자매 한 분이 모깃소리처럼 들리는 위층의 성가를 가만가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의 목소리가 돌이 되고 셋이 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입을 모아 기도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미사를 마치며 가슴이 뜨거워져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셨다면 어디 계실까. 저 위쪽 대성당이 아니라 이 작은 지하 성당, ‘고장’ 앞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을까.

며칠 후였습니다. 정릉성당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쳐다본 성모님, 희디 흰 은혜의 성모님이 울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모상의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검디검은 눈물을 그때 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성모님은 눈물까지 흘리시는 걸까.

너무 놀라서,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아서... 도망치듯 들어선 성당 안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이마에 대고 앞드려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를 보고 울고 계시나

요, 성모님.”

“왜 그걸 하지 않니?”

성모님이 저에게 물으셨지만, “뭔데요?” 하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길 가야 하지 않니? 중국 취재.”

소설은 중단한 채 몇 년, 최양업 신부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중국 취재를 미루기만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울고 계시다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놀람과 부끄러움 속에 성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여행사에 연락을 했고 중국 취재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정릉성당을 찾아갔습니다. 눈물의 성모님을 만나 이 기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햇살도 따스하게 새해가 시작되고 있던 그날. 다시 찾은 성모님은 울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야 알았습니다. 내가 만난 성모님의 눈물은, 눈물이 아닌 매연으로 찌든 서울의 눈이 머리에 얹혔다 녹아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한
낫
교
리

2024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제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입니다.

교황청 공보부는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는
모든 이주민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신
주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이는 내 몸이다

(마르 14,22)



이영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파스카와 무교절 축제가 시작되기 이틀 전,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가 협상을 벌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이런 행동에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고 마르코는 전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먹을 장소를 마련합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에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만이 그 식사가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말씀,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의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사실 파스카 만찬은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르게 예식적인 특성, 곧 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탈출 12장 참조) 모세를 통해 자신들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업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적 성격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선 누룩 없는 빵을 들고 하느님께 강복을 청하며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린 후, 그것을 제자들이 나누어 마시게 한 다음,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르 14,24)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단순한 은유로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 여기며 그 중요함을 놓쳤던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보다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당신을 따르게 될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실 온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구원 업적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양 또는 염소를 죽여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의 두 문 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명하신 하느님의 말씀과 파스카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당신의 살과 피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자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자신을 봉헌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모세를 통해 준비하신 옛 계약을 완성하는 새로운 계약의 제물이며,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는 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만찬 식사 때,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온 인류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하느님 사랑의 절정인 성체성사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부활의 빛으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곧 성체와 성혈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추기경 김수환 스테파노’ 세 단어 모두 의미 깊습니다. ‘추기경’은 가톨릭교회의 중요 책임자를 의미하고, ‘김수환’이란 이름은 가톨릭 신자는 물론, 한국 사회에도 중요합니다. ‘스테파노’ 성인은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 증언과 선교를 했고, 이에 반대하던 유대인들과 충돌합니다. 초기 교회 일곱 봉사자 중 하나로 추정되는 스테파노는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였고, 큰 이적과 표징을 일으켰습니다.(사도 6,8 참조) 천사의 얼굴을 하였던 스테파노는 최고 의회 연설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고, 결국 신성 모독으로 고발당한 후 성 밖으로 끌려 나가 죽임을 당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사도 7,60)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스도교 첫 순교자의 죽음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찬동하였고,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사도 8,1-3 참조) 사울은 어린 시절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문하에서 엄격한 유대교 교육을 받았고,(사도 22,3 참조) 벤야민 지파 출신으로 율법을 중시하고 종교적으로 충실한 골수 바리사이였습니다.(행 3,5 참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르침은 그에게 가당치 않은 주장이었기에, 박해의 선봉에 나섰습니

다. 박해자 사울은 더 큰 박해를 위해 떠나던 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사도 9,5) 사울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사도들과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후 1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사도 13,9 참조) 사도 바오로라는 이름은 후대에 그리스도교 최초의 신학자, 이방인들의 사도, 열정적인 선교자, 불굴의 증거자로 기억됩니다.

김수환 추기경, 첫 순교자 스테파노, 사도 바오로. 이 세 사람에게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보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결코 인간에 대한 하느님 마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느님 뜻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니에서도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non mea, sed Tua)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성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필리 1,21 공동번역)



2027 서울 WYD, 젊은이들의 열기를 모을 준비가 한창

1.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는 WYD의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젊은이들을 초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기초 양성’과 ‘젊은이의 날 행사 기획 및 준비’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준비 과정 봉사자 모집은 9월 9일(월)부터 9월 25일(수)까지 사제와 수도자의 추천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 봉사자들은 ‘성령 안에서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WYD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기초 양성에 참여합니다. 이후, 기획, 양성, 행사, 홍보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활동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 프로그램

2027 서울 WYD 준비 여정이 기도의 분위기 안에서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대화’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때로, 기쁨의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해야 하는 과업 그 자체에만 몰두하다보면, 준비 과정이 신앙의 의미를 잃고 그저 부담스러운 ‘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WYD 준비 과정이 예수님과 만나며 그 분께서 함께하시는 사랑의 길을 걷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대화’가 준비되었습니다.

2. WYD 총괄 코디네이터인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께서 19개 지구를 차례로 방문하시어, 청소년, 청년들과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미사도 봉헌하실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주교님께서 직접 젊은이들을 WYD 준비 여정에 초대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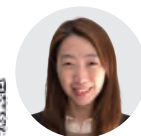


2027 서울 WYD 서포터즈, 희망으로 산티아고를 걷다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2027 서울 WYD 서포터즈 희망의 산티아고 순례단’이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총 25명으로 구성된 이번 순례단은 순례길을 걸으며 다양한 국가의 순례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부채 등을 선물하고, 라틴어와 한국어 성가를 불러주는가 하면, 순례자의 이

름을 우리말로 써주고 젓가락질을 알려주는 등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순례하는 동안 2027 서울 WYD를 홍보하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행사를 소개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외롭지 않기를 두렵지 않기를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세상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웃어젖히고, 관심이 가는 상대가 생기면 앞뒤 썰 것 없이 돌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이른바 ‘덕질’을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때이기도 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느라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들에게 성장과 에너지, 열정 같은 단어들은 나와 관계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로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분투와 다름없는, 병과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은실 작가의 청소년 소설 《2미터 그리고 48시간》의 주인공 정음이는 그레이브스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면역 체계가 착각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정음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피곤했고, 안구가 튀어나왔으며, 약물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체중도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에 병을 진단받은 후 열여덟 살이 된 지금까지 건강한 아이들로 가득한 학교 안에서 정음이는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정음이의 외모를 두고 놀리는 다른 반 애들도 상처를 주었지만, 더 깊은 상처는 걱정과 조연을 가장한 가까운 이들에게서 왔습니다.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너 그렇게 우울한 얼

굴로 늘어져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 좀 웃어라. 너보다 더 아파도 잘 웃는 사람 많잖아.”(30쪽) 친구라고 생각했던 J의 말은 정음이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고통을 전더내는 것으로 모자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환자의 역할이라는 말이었을까요.

약물치료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게 되자 의사는 갑상샘 조직을 파괴하는 방사성 아이오딘(요오드) 치료를 권합니다. 소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과 같은 이 치료는, 치료 후 48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고립을 자초하는 정음이에게 놀랍게도 성큼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하는 이들 덕분에 정음이는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앞으로의 인생이 조금은 덜 두려워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어느 순간 병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아픈 사람에게 ‘병과 싸워 이기라’, ‘완치하라’고 주문”하지만, “아픈 사람은 그저 아픈 몸을 살 수 있을 뿐”(157, 158쪽)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아픈 청소년이 조금은 덜 외롭게, 조금은 덜 두렵게 아픈 몸과 마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주변에 마음 따뜻한 이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서 | 잔꽃송이 | 나의 멘토 나의 성인 |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중 편지
|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 편지

내 삶의 멘토, 성인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성인들 삶에 매료되고 그 세계에 눈뜨게 되었던 것은, 대학 시절 봤던 프란치스코 성인 관련 영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께 매료되자 《잔꽃송이》를 비롯한 그분 전기를 읽게 되었고, 차차 많은 성인전을 읽으면서 교회 전통 안에 있는 풍요로움에 맛 들이게 되었습니다. AI(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해서 미래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어 ‘사람됨’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당신께로 이끌어 주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의 주보 성인’으로 불렸고 최근에 시성이 확정된 카를로 아쿠티스(1991-2006)는 하느님을 추구한 21세기 청소년의 좋은 사례입니다.

많은 성인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인들이 저기 구름 속에 있는 분처럼 느껴진다면,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 쓴 《나의 멘토 나의 성인》으로 성인과 만남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1세기적 감수성과 유머 감각, 개인 체험을 잘 버무려 성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방식을 ‘수호자’형과 ‘동반자’형으로 구분합니다. 수호자형이란, 성인들은 하느님 가까이 있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관계입니다. 마치 나를 위해 부모님께 말씀드려 달라고 형이나 누나에게 부탁하는 식으로 성인들과 관계 맺는 것이죠. 동반자형은 하느님께 가는 길에서 성인들을 마치 친구나 멘토로 여기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성인을 친구나 멘

토로 삼게 되면 인생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성인전에서 순교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순교자 성월을 보내고 있으니 한국 순교자들의 글을 읽고 성지순례 하는 것도 시의적절할 것입니다. 전주 치명자산은 어떨까요? 2014년 시복된 이순이 루갈다의 가족묘가 있습니다. 치명자산 아래에는 전동성당, 한옥마을도 있으니, 신앙에 큰 관심 없는 가족을 유인(?)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이순이·유중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아 동정 부부로 지냈고 꽃다운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참수를 당하며 흰색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중 편지》가 출간되어 있고, 조선 후기 사회와 여성의 맥락에서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이순이를 한반도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묘사한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 편지》도 있습니다.

성인은 각자 인생의 무게와 문제를 안고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고유하게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 뜻을 식별하고 투신해 나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순이 루갈다나 마더 테레사처럼 살아갈 수 없고, 하느님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추구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 나가 자신의 성인전을 써나가도록 불리었습니다. 성인들은 이 길에서 수호자이자 좋은 멘토가 될 것입니다.

오늘(9월 29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조 파트리치오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에서 활동하셨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조 파트리치오(Patrick Joseph Muldoon) 신부님께서 지난 9월 6일 서울 효성요양병원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조 파트리치오 신부님은 1934년 아일랜드 로스코먼 주 도나몬에서 출생하여 1958년에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진도·무안성당(광주대교구), 상계동·마천동성당, 상대원성당(수원교구), 신정동성당, 상동·고잔성당(인천교구), 서울대병원 원목실장, 국립의료원 원목실장, 강북삼성병원 원목실장으로 사목하셨습니다. 9월 9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5일 양주선(덕환) 안드레아 신부(55세)
- 1950년 10월 5일 유재옥 프란치스코 신부(52세)
- 1950년 10월 6일 서기창 프란치스코 신부(50세)

초대교구장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 시복 추진에 관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의 담화문(요약)

서울대교구는 초대 교구장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님’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황청 시복 절차법에 따라 주교님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과 성덕의 명성에 관한 연구를 차분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구 단계의 시복 재판(예비 심사)을 개정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기초위에 세워졌기에 그의 죽음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담화문으로 예비 심사에 앞서 모든 신자의 의견을 듣는 공시 절차도 병행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브뤼기에르 주교님 시복)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시복시성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영웅적 덕행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곧 시복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삶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기도와 현양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담화문 전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구청 알림

명동대성당 중국어 미사 안내(이주사목위원회)

때: 매일 첫째·둘째·셋째주(일) 오전 9시
곳: 명동대성당 교스트홀(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74-1784

1437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비현 본당
문의: 02)727-2420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목주기도 음악회

주제: 아름다운 노래 Ave Maria로 바치는 목주기도 한 단 / 문의: 02)777-2013
때, 곳: 10월8일(화), 명동대성당 교스트홀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24 공관복음서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 조창수 신부
내용: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
때, 곳: 10월3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직업연주자로 구성된 한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때, 곳: 10월7일(월) 19시~21시, 명동대성당 / 02)776-8810
내용: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공연, 성악가 및 가톨릭합창단 협연 / 참석: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10월10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 집전: 김현진 신부(콜롬비아 선교)
문의: 02)727-2407, 2424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제1회 하늘땅물벗 전국대회

대상: 하늘땅물벗 회원 및 협력회원
주제: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십시오” (“Hope and Act with Creation”)
때: 10월9일(수) 10시30분~16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스트홀
주최: 하늘땅물벗 한국협의회
주관: 하늘땅물벗 서울교구본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2024 「가톨릭 50+ 성경 봉독 학교」 교육생 모집

내용: 성경 봉독을 위한 발음, 발성, 호흡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 대상 및 인원: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15명(선착순 마감)
때: 11월6일(수)~27일(수) 10시30분~12시(총 4주)
곳: 교구청별관 523호 / 회비: 5만원
신청기간: 10월27일(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목국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문의: 02)727-2385, 6 /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변영숙 개인전: 1전시실
고윤미 개인전: 2전시실
박경미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9월25일(수)~10월3일(목)

순교자현양신심미사(340회) 및 음악회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40회)
때: 10월8일(화) 오전 10시
곳: 절두산순교성지 / 문의: 02)2269-0413
2) 순교자현양회 합창단 16회 정기연주회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과 김대건 성인기념사업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음악회
때, 곳: 10월18일(금) 19시30분, 서소문성지역사 박물관 콘솔레이션홀 / 입장권: 전석 2만원
문의: 02)2269-0413, 4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10월6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0월7일(월) 13시30분~16시30분

용문수련장 복사학교 안내

1) 하반기 초급 복사학교

때: (금) 오전 10시~(토) 오후 4시

초급 1차	11월1일(금)~2일(토)
초급 2차	11월8일(금)~9일(토)
초급 3차	11월15일(금)~16일(토)

신청방법: 용문청소년수련장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 마감: 10월15일

2) 소규모 복사학교

본당 복사단에서 날짜를 정해 복사학교를 의뢰 가능
1~2개 이웃본당 연합참가 가능 / 문의: 031)774-6422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10월1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김종국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마진우 신부(마산교구 초전성당 주임)
 때, 곳: 10월16일(수) 12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도보순례 순교자암송로(덕산교성지) / 문의: 010-3807-1784

때, 곳: 11월16일(토), 덕산-한티고개-해미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 회비: 1인 6만원
 일본: 11월24일~28일, 나가사키-운젠 / 회비: 147만원

노들담 수녀회 청년 피정-기도하고 노동하라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20명 / 회비: 8만원
 때, 곳: 10월26일(토) 10시~27일(일) 15시, 노들담
 생태영성의 집(강화) / 문의: 010-3930-6730

남북 평화적인 통일기원 체나콜로 및 미사

때, 곳: 10월7일(월) 10시45분, 명동대성당
 미사: 서상범 주교와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교황
 대사), 전국 MSM 사제단 / 평신도 800명 선착순 입장
 문의: 010-3136-7869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10월11일(금)~13일(일)
성경 완독	11월1일(금)~9일(토), 12월6일(금)~14일(토)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11월15일(금)~17일(일)	허규 신부(서울대교구)
12월20일(금)~22일(일)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2025년 1월17일(금)~19일(일)	신우식 신부(원주교구)

가정선교회 10월 피정-미사

때, 곳: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10월2일(수) / 맹진학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도 미사	10월5일(토) / 홍성남 신부
치유 회복을 위한	10월19일(월) / 윤민재 신부
찬양 피정	찬양: 고영민 부회장님, 신상옥 가족팀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0월4일 10시~15시30분
다네이 영성수련(대침묵)	10월25일(금)~27일(일)
단식 피정	11월25일(월)~29일(금)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수)~14일(토)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노베나 기도	11월2일(토)~10일(일)까지 9일 동안
신청	미사·위령기도 봉헌해드립니다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생태 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때, 곳: 10월2일~4일·10월25일~27일·11월1일~3
 일·11월15일~17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통합사목
 센터-주최) /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11월1일(금)~3일(일) 2박3일 / 10월24일까지 접수
 곳: 성바오로 피정의 집(시흥시 계수동)
 문의: 02)333-9898 (월~금) 한국CLC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 회비: 3만5천원
 때, 곳: 10월5일(토) 9시30분~16시, 성체순례성
 지(옛 김포성당) / 대상: 청년 가톨릭 신자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1층 정문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헤로데에게 치명당한 갓난아기는 피로써 예
 수님을 증거했지만 과연 우리는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0월12일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교육

목요 영성치유 아카데미(내·외적, 영적치유)

강사: 손광배 신부, 이상기·김완식·고영민·한영임 회장
 때: 매주(목) 10시30분~17시30분 / 010-3248-9705
 곳: 지혜의샘(주최)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기도하며 기도를 배움시다' 성체조배 가을 영성학교

때, 곳: 10월16일·23일·30일·11월6일·13일 매주(수)
 14시~16시(5회), 영성센터(명동) B201호 / 회비: 5만원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월14일(월)~25일(금) / 전형일: 11월15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5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월30일(월)~10월10일(목)-전형일 10
 월19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
 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
 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
 석·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7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봉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17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10월5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10월5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명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10월4일(금) 11시10분, 절두산 성지(전철 2
 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안내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7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
 ·분당(구미동성당) 2만원 ·서울 목동(파전)

한국가톨릭작곡가협회 '희년'을 노래하다

곳: 도림동성당 / 010-5074-6842, 010-4050-0517
 1) 제24회 성음악발표회: 10월18일(금) 20시
 연주: 에토스콰이어 / 지휘: 박선미
 2) 제25회 성음악발표회: 10월25일(금) 20시
 연주: 루멘챔버콰이어 / 지휘: 정지윤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뜻한이 기도모임	매일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직원모집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지원	재무회계
디자인	웹·콘텐츠, 편집
판매	매장 운영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0월5일(토) 14시~6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구제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묵주 기도 성월 추천 도서

“묵주 기도를 바칩시다.

성모님은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대형 3천5백원



스프링형 4천5백원



접이식 2천5백원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의 9일 기도

- 묵주의 9일 기도 방법
- 4가지 신비를 그린 성화
- 성인들의 말씀 수록
- 5단 묵주 일러스트 수록
- 주요 기도문,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묵주 기도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7천원

간절한 청원을 말씀드리며
묵주 기도를 기록할 수 있는 노트

묵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는
기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드리는 첫 묵주 기도

알레산드로 사라코 지음 | 8천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묵주 기도의 신비를 묵상하다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는 묵주 기도서

가톨릭출판사와 함께하는 가톨릭 고전 독후감 공모전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가톨릭 고전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여러분이 고전 속에서 발견한 깨달음과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모집 기간 9/3(화) ~ 11/17(일)

원고 분량 원고지 매수 20매 내외 (±3매), A4 3장 내외 (글자크기 10포인트 기준)

대상 도서 단테의 신곡(상) 외 18종

발 표 2024년 12월 3일 (화)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과 SNS에 공지 (수상자 개인 연락)

시상 내역

대상 (1명) 상금 70만원과 상패

최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과 상패

우수상 (3명) 상금 30만원과 상패

장려상 (4명) 상금 20만원과 상패

※ 접수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혹은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